

민 지 실	음 혜 천	<h1>BUDDHANARA</h1>	FAITH WISDOM ACTION
----------------------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토요일 11시 전법 기도 법회

넷째주 일요일 11시 예불문 해설 II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의식의 신비 속에

감추어진 몸통 없는 마음,
그래서 멀리 날아 갈 수 있다네.
마음 조화 이룬 사람
죽음의 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네.

Hidden in the mystery of consciousness, the mind, incorporeal, flies alone far away.
Those who set their mind in harmony become free from the bonds of death.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7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경전 속 가르침 <중일아함> 제 22 권 수타품(須陀品) 제 3 경

타종교 믿는 며느리 들어와 노부모 개종시키는 세태 속에 어린 자식이라도 잘 이끌려면 정법부터 배우고 실천해야

부처님이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기원정사를 기증한 수닷타 장자가 찾아와 부처님께 딸의 결혼문제를 상의했다.

“저에게 수마제라는 딸이 있는데 만부성(滿富城)의 만재(滿財) 장자가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만재장자는 의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수마제가 만재장자의 며느리가 되면 그 집안에 이익을 주고, 많은 사람을 교화할 것이다.”

수닷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보름 뒤에 수마제를 시집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결혼직후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만부성 사람들은 성안에 살던 처녀가 다른 성으로 시집을 가거나, 다른 성에 사는 처녀가 이곳으로 시집을 오는 것을 금하는 규칙이 있었다. 만재장자는 수마제를 며느리로 삼음으로써 이 규칙을 어겨 벌칙을 받게 된 것이다. 만재장자가 받아야 할 벌칙은 돼지를 잡아 국을 끓이고 고기와 술로 많은 범지(梵志)를 공양하는 것이었다. 만재장자는 벌칙을 받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범지들을 초대했다. 만재장자 집에 초대된 범지들은 모두 벌거벗은 나형외도(裸形外道)들이었다. 만재장자는 새로 시집온 며느리 수마제를 그들에게 인사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수마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저들은 벌거벗은 채 맨살을 법의(法衣)라고 우깁니다. 그것은分別이 있는 말이 아니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수마제의 남편이 나서서 ‘이 분들은 우리가 하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라면서 인사를 드리라고 했다. 그러나 수마제는 ‘예의를 모르는 짐승 같은 사람에게는 예배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거절했다. 이 일로 만재장자는 커다란 근심이 생겼다. 누각에 올라가 생각하니 수마제를 며느리로 삼은 것이 후회됐다.

그때 수발이라는 범지가 지나가다가 왜 그토록 근심에 싸였는가를 물었다. 만재장자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수발은 며느리가 섬기는 부처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 만재장자는 며느리를 시켜 부처님을 뵙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부처님은 목갈라나, 카사파, 아니룻다, 수붓티, 라홀라, 출라판타카 등을 먼저 보내고 당신은 나중에 사리풋다, 카운디냐, 아난다 등을 데리고 만재장자의 집으로 갔다. 이 행차에는 파세나디 왕과 수닷타 장자도 동행했다. 만재장자는 부처님이 여러 사람과 함께 오는 것을 보자 그 거룩한 모습에 저절로 무릎이 꿇고 예배를 올렸다. 외도들은 그 모습을 보자 사자왕이 나타나면 모든 짐승들이 자취를 감추듯이 만재성을 떠났다. 부처님은 장자의 집에 들어가 공양을 받은 뒤 보시와 지계의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나는 법, 괴로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사제법(四諦法)을 설했다. 만재장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번뇌가 사라지고 법안(法眼)이 깨끗해졌다.

수마제와 같은 얘기는 요즘 우리 주변에도 많다. 다만 그 결론이 반대다. 의도를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불자부모를 개종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짹짹하다. 그렇게 안 되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어려서부터 자식이 사탕 소견에 빠지지 않도록 잘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자면 수닷타 장자처럼 부모부터 먼저 정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부모가 ‘바담풍’ 하면서 자식에게 ‘바람풍’ 하라고는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수마제가 시댁식구를 교화했던 얘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수마제녀경>이라는 별도의 경전으로 남아있을 정도다.

홍사성 (불교 신문)

최초로 결집...모두 다섯장으로 구성 ‘무소의 빨처럼 혼자’ 수행자 경책 눈길

부처님 당시에 바라문 청년들이 대거 부처님께 귀의해 부처님의 제자가 된 적이 있었다. 그 장면이 <숫타니파타(Sutta_nipada)> 제 3 장 ‘대품’에 나온다. 부처님이 이들에게 “눈이 있는 자는 빛을 보라”는 말로 수행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아 준다. 이 말의 뜻은 부처님의 법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누구든지 눈이 있으면 사물을 보듯이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어두워 보이지 않았던 것을 부처님이 횃불을 밝혀 어둠을 물리쳤으니 누구든지 보고 싶은 사람은 와서 보라는 뜻이 담겨 있는 말이다. 흔히 부처님을 해에 비유해 불일(佛日)이라고 한다. 어둠을 밝히는 해와 같은 역할을 부처님이 한다는 것이다. 중생을 무명(無明) 중생이라 하여 어둠에 갇혀 있는 존재로 본다. 어두운 밤에 불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듯이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항상 진리에 어둡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제거해 밝음 속에서 보고 싶은 대로 보라고 일러준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숫타니파타> 의 이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를 단적으로 비유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 말이다.

<숫타니파타> 는 경을 모은 ‘경집(經集)’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이 경은 수많은 불경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경으로 초기경전을 대표한다. 때문에 초기불교를 이해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 역사적 인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경이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제자들이 생전에 설한 말씀을 암송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전(口傳)시킨 것을 최초의 경전 결집(結集 : sangiti)이라 한다. 그러다가 팔리어(Pali)라는 언어를 통해 비로소 문자화 되면서 경전이 새로운 체제를 갖추게 됐다. <숫타니파타> 는 바로 팔리어 장경에 들어 있는 경으로 운문체의 짧은 시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다. 마치 <법구경> 과 비슷하게 돼 있다. 이 경은 모두 다섯 장(章)으로 돼 있는데 대개의 경전이다 그러하듯이 각 장이 따로 전해지다가 어느 시기에 와서 함께 묶어진 것으로 본다. 그때를 대략 아쇼카왕 재세시인 기원전 3세기 중엽, 제 3 결집이 이루어진 시기로 본다.

제 1 장의 이름이 사품(蛇品)으로 돼 있는데 뱀이 허물을 벗는 것에 비유해 수행자의 정신을 경책해 놓은 말들이 많이 나온다.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치료하듯 치미는 화를 삭이는 수행자는 이 세상 저 세상을 모두 버린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뱀이 뚝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수행자는 이 세상 저 세상을 다 버린다는 말이 노래 가사의 후렴처럼 들어 있는 문장이 계속 나온다. 이는 바로 수행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조한 말이다. 또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도 나온다. 그런가 하면 유명한 법구라 할 수 있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라”는 말도 나온다.

세속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인생을 장애물 경주라고 말하듯이 이 세상은 삶 자체에 장애가 많다. 수도의 세계에도 물론 장애가 있다. 때문에 고행의 길을 가야하는 것이 수행자의 길인데 다만 수행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디에도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초연한 자세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다고 비유해 말한 것이다.

- St. Louis Magazine 2 월호 잡지에 나온 기사입니다. 잡지를 구입하지 못하신분들은 St. Louis Magazine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stlmag.com -

One City, Under Gods



There's no doubt St. Louis is a town steeped in Catholic history, but here we offer a quick immersion—no baptism required—in a few of St. Louis' less familiar religious traditions: atheists, Bahá'ís, Buddhists, Jains, Sikhs, Latter-Day Saints and seekers of spiritual metaphysics.

Korean Buddhism—Peace on Earth

By Jeannette Batz Cooperman
Photograph by Dilip Vishwanat

We are seated on pillows beside the fireplace, bowls of steaming water warming our tea-cups. Handmade rice-paper lanterns filter rows of tiny electric light bulbs overhead, giving the room the soft light of dawn. Bikkhuni Sungak Sunim prepares to serve three teas: the first mild, as teenagers know life; the second very rich (“This is the middle life”); and the third slightly bitter (“Power, energy; everything has been given to children and to other people”). She carefully pours the first cup, which has its own ceramic cover. “I am going to give this one to the Buddha!”

Her brown robe unfolds smoothly as she rises and goes to the altar, smiling up at the golden Buddha statue that took more than a year for a Korean master to create. “I told him, ‘This Buddha stays in the United States; maybe in the future it will become one of the treasures in St. Louis,’” she recalls

Advertisement

. “Please make him one of the most beautiful Buddhas—and make his face a mix of Korean and American faces, and in his robe—” she points to the ties, which form the shape of the Gateway Arch.

A Buddhist monk of the Chogye order, Sungak is celibate and has formally studied Sanskrit scriptures and meditation (“to learn the heart of the Buddha”) for more than 15 years, in addition to earning a master’s degree in social work from Washington University. She had intended to go on for a Ph.D. and return to Korea as a professor, but fellow students at Wash. U. begged her to teach them to meditate. “They were thirsty for the peaceful experience,” she says. “I said, ‘OK, please come, but I don’t have any cushions.’ I thought they would give up. But for two years, every Sunday, *knock!* They come. So I give up. OK, Ph.D. later. I must start a temple here.”

In 2002 she founded the Buddhanara Temple and Monastery in a small, serene house in Olivette, and she is now looking for three acres on which to build a

meditation center.

“If people are not peaceful, they make mistakes,” she says. “They cannot control their anger. They are very sad.” Americans, she’s noticed, lose peace by constantly comparing themselves to others—and rarely living in the present. “Some people say, ‘I was so beautiful 10 years ago’ and want plastic surgery right away. They still want to live 10 years ago, their *past* life!”

Sungak offers a list of 10 meditation guides, from “Why long for a life free from hardship? It only leads to self-pampering. Make worries and hardships a way of life” to “Why expect rewards for your kindnesses? This leads only to a scheming mind.” She speaks of Buddhism’s four vows: to save all beings; to end all suffering; to learn all Dharma teachings; to attain enlightenment. “To save all beings, start with small kindnesses,” she suggests, “not torturing animals, not wasting food. If you must eat meat for protein, please eat this much” (she makes a circle of her thumbs and forefingers) “and none left, and say, ‘Thank you, cow!’”

Presumably she doesn’t squash bugs?

“Sometimes I do,” she says cheerfully. “Cockroaches. But I bow to them and say, ‘I am so sorry.’ And not squashing; that is cruel. I pick them up and say, ‘I’m living here, and I’m scared of you. Your house is not here. Your house is outside.’”

Lay Buddhists follow five ethical rules: no killing, no lying, no stealing, no intoxication, no misconduct (e.g., infidelity). The emphasis is on freedom and the equality and connectedness of all living beings, *not* on dogma. “We don’t say, ‘Oh, you must believe the Buddha.’”

“An issue like abortion, yes, that is a killing,” Sungak adds slowly, “but it is very complicated. Don’t push from the religion; think first about the mother, why she wants the abortion. Ask what is the best choice for her. Her life is important, too.

“And we never say ‘gay’ or ‘lesbian,’” she adds. “They are different species? No, they are human beings. They are Buddha nature; they can become Buddha too. No bias.”

세인트루이스 메거진 홈페이지 주소: <http://www.stlmag.com>

- 번역본 -

한 국 불 교 - 자비가 온 누리를 덮고

(Korean Buddhism - Peace on Earth)

글쓴이: 자넷 코퍼만 (세인트루이스 메거진 편집장)

우리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다윈 속에서 찻잔이 데워지고 있는 가운데, 법당 안에 있는 벽난로 옆에 방석을 깔고 앉아있었다.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한지로 만든 연 등들이 만들어내는 은은한 빛들이 법당 전체를 부드럽고 신비로운 빛을 뿜는 산사의 새벽 기운으로 감돌게 만들고 있었다. 비구니 선각스님은 세가지 차를 준비하고 계셨다. 첫 번째 차는 어린이들이 세상을 알 때처럼 부드러운 맛있고, 두 번째는 중년처럼 향이 풍부한 차이며, 세

번째는 모든 에너지를 어린이들에게 다 주고난 노년처럼 살짝 짧은 차였다. 스님은 차를 조심스럽게 첫번째 차를 뚜껑이 있는 찻잔에 따르고는 “이 잔은 부처님께 올릴 겁니다”라고 말하였다.

스님이 일어나서 불단으로 걸어갈 때 스님의 가사가 부드럽게 펼쳐졌고, 한국의 장인이 조성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다는 금부처님을 향해 스님은 미소 지었다. “내가 불상을 조성하시는 불모님에게 부탁했지요, 지금 조성되는 부처님은 미국으로 가실 것이고 미래에는 아마도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가장 큰 보물이 될 겁니다. 그러니 제일 자비롭고 힘있는 부처님으로 조성해주시고-부처님 상호는 한국사람과 미국사람 얼굴을 섞어서 조성해 주시고 부처님 가사는..” 스님은 부처님의 가사 매듭을 가리켰는데 우연의 일치로 미국의 상징중의 하나인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게이트웨이 아치 (서부의 관문) 모양이었다.

대한불교조계종 스님인 선각스님은 독신이고 법납 25년 동안 스님으로 살면서 산스크리트어와 참선(부처님의 정수를 배우고자)을 공부했으며 워싱턴 대학 사회복지 대학원에서 의료복지와 가족치료로 석사학위를 받기도 하였다. 스님은 박사 학위를 딴 후 한국으로 돌아가 교수가 되어 후진양성을 하고 한국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지만 워싱턴 대학의 동료 학생들은 스님께 참선과 불교를 가르쳐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다. 그들은 자비로운 삶의 경험에 무척이나 목말라 했다. 스님은 그들에게 “좋아. 오세요. 하지만 참선할 좌복도 없으니 알아서 들 하세요” 스님은 그들이 금방 포기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스님이 대학원에서 학업에 정진하는 2년 동안 매주 일요일이면 ‘똑! 똑!’ 하고 그들은 어김없이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모임” 법회에 찾아왔다. 결국은 스님이 포기했다. “좋다. 박사는 다음 번이다. 이곳에 모든 이들이 마음의 쉼터가 될 수 있는 절을 세우자.”

2002년에 스님은 세인트루이스의 작고 조용한 집에 부다나라 절 (한국 명: 불국사)을 창건하여 본격적에 포교의 일선에 나서게 되었다. 현재는 참선센터를 세울 3 에이커의(4천평 정도) 땅을 물색하고 있다. “사람들이 평화롭지 않으면 실수를 저지르게 마련이지요, 그들은 스스로의 분노를 다스릴 수 없고 슬픈 인생이 될 뿐입니다” 스님은 미국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평화를 잃어간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난 10년 전엔 참 예뻐지’라고 말을 하고 당장 성형수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10년 전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거죠, 그들의 지나간 과거를 말입니다.”

선각스님은 참선을 배우기 위해 사찰을 찾는 이들에게 보왕삼매론을 가르친다.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제 잘난 체하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기를 '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에서부터 “공덕을 베풀 때에는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게 되면 불순한 생각이 움튼다.”에 이르기까지. 스님은 또 사홍서원을 말한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불법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스님께서는 중생을 다 건지기 위해서는 동물을 괴롭히거나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등 작은 자비 행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약 단백질이 꼭 필요해서 육식을 해야 하더라도, 이 만큼이면 될걸요?(스님은 엄지와 검지로 작은 원을 만들어보인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육식을 취하게 되면, 음식을 남기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다 드시고 육신을 나에게 보시해준 동물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성을 가진 소야 고맙다.’”

스님은 벌레들을 죽이지는 않을까? 스님은 웃으며 대답하신다. “가끔씩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기도 하지요. 바퀴벌레 같은 경우인데 저는 그들에게 합장을 하고 ‘미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때리거나 비벼 죽이는 행위는 너무 잔인합니다. 저는 벌레를 두 손으로 감싸 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곳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고 네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다. 네 집은 저 바깥이란다’. 그리고는 바깥에 놓아주지요.”

불교신자들은 5 계를 지킨다. 불살생, 불망어, 불투도, 불음주, 불사음. 불교의 사상은 독단을 벗어난 해탈과 평등 그리고 모든 중생의 인연법을 강조한다. “우리는 ‘당신은 반드시 불교를 믿어야만 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선각스님은 낙태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종교적 원칙만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는 없는 사안이지요; 첫째로 엄마를 생각해야 하고, 엄마가 왜 낙태를 원하는지 생각해봐야만 합니다. 엄마나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물어봐야합니다. 그녀의 인생 또한 중요한 것이니까요.”

스님은 또한 동성애자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이 특별한 종류인가요? 아닙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요. 그들도 모두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불성을 갖고 있는 존귀한 사람들이지요. 그들도 수행만 한다면 부처님이 될 수 있어요 나와 나 우리 모두가 평등하지요.”

정초기도

천 개의 해가 떠서 비추듯
한없이 맑고 깨끗하신 부처님.
새해가 열리는 이 아침에 고요히 합장하고,
저희는 새 모습으로 발원합니다.

무한 공덕의 축복으로 태양은 떠오르고,
빛나는 생명 지혜, 끝없는 자비 덕성,
넘쳐나는 희망과 용기의 햇살이
찬란히 펼쳐옵니다.

참 생명의 불성 공덕 드러내기 원하오며
저의 원력 더 큰 지혜와 자비로 빛내주옵소서.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 속에
희구하는 착한 일들 원만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불국사(영문이름: **Buddhanara Temple**)에서는 불기 2551년 1월 1일(양력)에 기도를 입재해서 회향하는 4월 11일(관음재일)까지 정해년 정초 백일기도를 봉행합니다.
정해년 정초 백일 기도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불국사나 한국 불국사 후원회로 연락 바랍니다.
기도 동참금은 \$100.00 (한국은 10만원)입니다.

정해년 정초 백일 기도 동참하신 신도님들(지면 관계상 주소는 생략): 신유생 목문석, 사천후인 목문균 영가, 기사생 박으뜸, 병인생 배진, 무진생 배수진, 임신생 배민철, 임진생 조남국, 병오생 노덕복(박인주), 임오생 한 누미자(Yumi Benton), 병신생 이은범(Un Bom Grabski), 갑진생 김홍진, 병오생 도원 이찬혁, 무자생 김대원, 병술생 이주원(단비), 을해생 무량화 김봉순, 정미생 문수연, 계축생 이금주, 병술생 유하연, 신해생 한애선, 임오생 정송자, 정묘생 방동현, 함평후인 이상명 영가, 갑자생 최효선, 을미생 김동희(Stanly), 병오생 홍대선, 이종명, 기사생 정수빈, 정영환, 정유생 이용성, 정미생 황현식, 무술생 김정훈, 기해생 김창호, 경신생 윤찬웅, 병진생 이동엽, 정미생 장경순, 신유생 김미사, 을축생 김미경, 정유생 박래경, 신미생 박꽃별, 무인생 박셋별, 무술생 김종학, 계해생 김강인, 기사생 윤소영, 기축생 김현웅, Woojin Robinson, 병신생 양순영, 정사생 김지은, 계묘생 손영찬, 경술생 김효진, 기해생 김창호, 임인생, 박향덕, 신미생 김수정, 계유생 김 준, 을미생 나순자, 임자생 서정미, 계묘생 임경순.

백일 기도 명단이 누락되신 신도님들은 미국 불국사(영문이름: **Buddhanara Temple**)로 속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회소식 NEWS

- 정해년 돼지 해가 밝았습니다. 2007 년에도 2006 년과 마찬가지로 주위 분들이 부처님법에 의지해서 인생을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불자님들 가까이에 계신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에도 전법 많이 합시다.
- 3 월 셋째주 일요일은 전법기도 법회날 입니다. 그동안 3 짜주 마다 특별 행사가 있다보니 “정진욱 박사님과 함께하는 교리 탐구”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3 월부터 다시 교리 탐구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신도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부처님을 존경하므로 기쁘게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생활화 해야 하겠습니다. 모두들 유익하고 좋은 시간들 가지십시오.
- 3 월 24 일부터 3 월 31 일 까지 불국사에는 한국에서 반가운 분이 오시고, 이 기간동안 일각 김영신 박사님이 불국사에서 기거하십니다. 교수님은 불국사가 세인트루이스에 개원하고 얼마되지 않아 어려울 때 미국으로 교환교수로 오시게 되었고, 1 년중 약 6 개월은 사찰에서 기거하시면서 사찰일을 도맡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불국사 뒷마당의 아름다운 정원과 잔디는 일각 거사님의 작품입니다. 불국사 식구들 모두 일각 거사님을 환영합니다.
- 양력으로 2 월 18 일 셋째주 일요일은 한국 전통 명절인 음력 설 이었습니다. 세알법회 후, 떡국 공양과 윷놀이 가 있었습니다. 많은 신도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성대한 설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지읍시다.
- 2006 년 1 월 1 일부터 2006 년 12 월 31 일 까지 불국사에 250 불 이상 시주하신 신도님들께 Tax Credit 을 받으실 수 있으시도록 불국사에서 2 월 초까지 신도님들 가정으로 서신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Donation Credit Letter 를 받지 못하신 신도님들을 불국사로 연락 바랍니다. 신속하게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Donation Credit Letter 를 받으신 신도님들은 CPA 에게 불국사에서 발행해 드린 Donation Credit Letter 를 제시하시면 Tax Credit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신도님들은 불국사로 연락 기다립니다.

- 2 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163 번 계해생 정준모, 164 번 신유생 정유정, 292 번 병진생 황영호, 335 번 병진생 홍미숙, 395 번 경오생 김승현, 396 번 계묘생 임경순, 397 번 무진생 정은선,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 짜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화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사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